

평가 피드백,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 및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해영 · 석동헌 †

대구대학교

< 초 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중립적(또는 평균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즉,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 조건에서는 공격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 이러한 평가를 한 사람이 가용하지 않고 무고한 대상이 존재할 때, 이 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학생 155명이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적) × 2(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낮음/높음) × 2(익명성: 있음/없음) 피험자 간 설계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평가 피드백은 참가자가 실험 2주전에 제출한 에세이에 대해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이 평가했다고 알려주면서 평가 점수를 평균적이거나(80점) 부정적인 점수(60점)로 거짓 피드백 해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그 후, 다른 주제에 대해 작성된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글의 작성자를 같은 대학의 교수 또는 학생으로 알려주어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높거나 낮게 조작하였다. 익명성은 참가자가 타인의 에세이에 대한 평가 점수를 기록하는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하거나 적지 않고 비밀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 변인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했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만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유의한 2원 상호작용도 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주제어: 전위된 공격, 평가 피드백, 사회적 지위, 익명성

(논문투고일: 2017.02.28. 심사완료일: 2017.04.19. 게재결정일: 2017.04.19.)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료에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사용함.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석동헌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Tel : 010-2908-5267 / E-mail : sdh@daegu.ac.kr

I. 서론

케냐의 마사이 마라 사냥금지구역에서 개코원숭이를 연구하던 동물학자는 수컷 어른 원숭이가 더 큰 수컷 원숭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원숭이는 더 작은 수컷을 공격하고, 더 작은 수컷은 더 작은 암컷 어른 원숭이를 공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런 다음 이 암컷 어른 원숭이는 청소년기의 원숭이를 공격하고, 이 청소년 원숭이는 새끼원숭이를 공격하여, 무고한 타인에 대한 폭력의 싸이클을 보여주었다. 이 예는 원숭이는 물론 인간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전위된 공격(displaced aggression)*을 보여주고 있으며(Reijntjes, Kamphuis, Thomaes, Bushman, & Telch, 2013a, p. 2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공격대상(target)이 어떤 특징을 가졌을 때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잘 나타나게 만드는 상황적인(situational) 요인에는 어떤 변인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공격(aggression)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된 행동을 말한다(Bushman & Huesmann, 2010).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격은 직접적(direct)이라 할 수 있고,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격은 전위되었다(displaced)고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전위된 공격은 도발의 원천에게 공격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행동이 제한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한 예로 도발자로부터의 보복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 공격을 제한하게 만든다(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 즉, 도발자가 강하거나 세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도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를 주저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때때로 희생양(scapegoat)으로 언급되는 무고한 대상에게 그들의 공격을 전위시킬 수 있다.

직접적 공격에 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들도 공격자의 기질적인(dispositional) 요인들, 공격대상의 특징,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공격자의 기질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의 목적은 주로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기질적, 성격적 또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를 밝혀 치료적 개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내적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힘들고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쉽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 없

* Displaced aggression은 '전위 공격성'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개념 정의상 공격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전위되었다'는 수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전위된 공격'으로 사용함.

이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공격자의 기질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공격성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기 쉬울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더 잘 표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적인 치료적 개입에만 국한될 수 있는 폭력예방 노력으로부터 더 나아가 사회나 학교가 폭력예방을 위해 어떠한 제도나 규칙을 만들고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의 기질적인 요인보다는 공격성이 표출되도록 만드는 공격대상의 특징과 상황요인에 집중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하는 공격대상의 특징 요인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 요인인데, 현대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 차별 등에 이러한 사회적 지위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상황적 요인은 익명성 요인인데, 현대에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광복할만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이전보다 익명적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 연구의 중요성도 증대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939년 Dollard와 동료 연구자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은 좌절이 공격을 유발한다는 좌절-공격 가설을 제안하면서 공격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공격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a) 더 큰 좌절 수준, (b) 목표에 이르려는 더 강한 기대, (c) 목표 달성에 대한 방해의 증가 등을 제안했다. 이후에 Miller(1941)는 공격이 공격을 유발한 대상을 향해 자주 지향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공격이 제한되고, 덜 강하고 더 가용한 대상에게 공격이 재지향되고 전위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한 요인들 몇 가지를 제안했다. 직접 공격의 제한요인으로 Miller(1941)가 제시한 요인들은 (a) 도발자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예. 도발자가 그 상황을 떠난 경우), (b) 좌절의 원천이 무형일 경우(예. 굶은 날씨가나 악취), (c) 도발자로부터 보복과 처벌이 두려운 경우(예. 도발자가 자신의 상사이거나 세력의 다른 원천을 가진 경우) 등 이었다. 이들의 연구 이후로 전위된 공격

에 대한 실험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어떤 연구들(예. Mosher & Proenza, 1968; Worchel, Hardy, & Hurley, 1976)은 화난 참가자들이 무고한 희생자에게 쉽게 공격을 전위시킨다는 것을 보인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화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화난 참가자들이 새로운 대상에게 후속적인 공격을 덜 보인다는 결과(예. Berkowitz & Knurek, 1969; White, 1979)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 간의 불일치를 반영하듯이, 공격을 다루고 있는 여러 현대적인 사회심리학 교과서들은 전위된 공격을 개념적으로 쓸모없는 현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전위된 공격에 대해 짧게나마 논하고 있는 교과서들조차도 전위된 공격의 실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Geen(1990)은 그의 교과서에서 전위된 공격에 대해 40 단어만을 할애했고, 이 개념을 50년 전의 좌절-공격 이론가들(Dollard 등, 1939)과 똑같이 정의했으며 책의 용어색인에 넣지도 않았다. Berkowitz(1993)는 몇몇 실험 증거를 제시하면서 약간 더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책의 436페이지 중 단 두 페이지만을 전위된 공격에 할애했다. Baron과 Richardson(1994)은 전위된 공격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고 Miller(1948)의 갈등 모형의 맥락에서 전위된 공격에 대해 두 페이지만을 할애했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해 2와 1/2 문장만을 할애했어 제시하는 등 전위된 공격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위상은 높지 않았다(Marcus-Newhall 등, 2000, p. 671에서 재인용).

이렇듯 전위된 공격에 대한 사회심리학 교과서에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Marcus-Newhall 등(2000)은 49개의 논문으로부터 도출된 82개 연구들을 통합 분석하여 전위된 공격이 상당히 강한 현상(평균 효과크기 = +0.54)이며, 조절변수 분석을 통해 (a) 참가자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더 부정적일수록 전위된 공격의 강도가 더 커지고; (b) Miller(1948)의 자극일반화원리와 일치되게, 도발자와 대상이 더 유사할수록 전위된 공격이 더 커지며; (c) 대비효과와 일치되게(Berkowitz & Knurek, 1969), 시초 도발의 강도가 전위된 공격의 크기와 역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래에도 경험적인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을 제안했다(Marcus-Newhall 등, 2000, p. 670에서 재인용).

이후에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는 실험연구, 상관연구, 그리고 척도개발 연구 등으로 다각화되었는데, 실험연구들(예. Aviles, Earlywine, Pollock, Stratton, & Miller, 2005;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Reijntjes 등, 2013a, 2013b)은 주로 참가자들을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러 조절변인을 탐색[예. 음주, 반추(rumination), 도발자 가용성, 공격자의 냉혹함(callousness) 수준, 공격대상의 집단소속(group membership)]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

재에 이르고 있고, 상관연구들의 경우에는 전위된 공격이 직장파와 같은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Hoobler & Brass, 2006; Liu, Wang, Chang, Shi, Zhou, & Shao, 2015) 등과 같은 실용적인 연구문제들을 고찰해 오고 있다. 또한, Denson과 동료 연구자들(Denson, Pedersen, & Miller, 2006)은 전위된 공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1.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공격 대상의 특징

전반적인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 대상의 특징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예. 공격대상의 얼굴 매력도(facial attractiveness)가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Rosen과 Underwood(2010)의 연구],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 대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았다. 이렇듯 공격 대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대상의 집단소속이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Reijntjes 등(2013b)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ijntjes 등(2013b)은 평균 나이가 11.6세인 137명의 네덜란드인 소년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인터넷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콘테스트에 게시할 개개인의 사진을 찍고, 자신의 취미, 자기에 대해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 직업 목표, 성격 특성 등에 대한 개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했다. 이 작성된 프로파일에 대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같은 나이 또래의 네덜란드 소년 4명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 해 준다고 거짓으로 알려 준 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피드백과 중립적으로 평가한 피드백을 조건별로 무선적으로 제공하여 피드백 변인을 조작하였다. 그 후에 참가자들은 피드백 제공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2명의 네덜란드 소년들과 2명의 모로코 소년들에게 공격을 표출할 기회를 주었는데, 공격의 지표는 공격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Cherek, 1981)을 변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의 대가로 4명의 소년들이 받게 되는 돈을 참가자가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즉, 공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종적으로 내집단(ingroup)인 네덜란드 소년들보다 외집단(outgroup)인 모로코 소년들에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나타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집단소속이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회에서 모로코인들이 인종적 및 사회경제적 기준에서 볼 때 소수의 지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네덜란드인들에 비해 전위된 공격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이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에 비해 전위된 공격의 대상으로 선택되기 쉬울 수 있고 또 더 강한 강도의 전위된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Reijntjes 등(2013b)의 연구가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지위차이(즉, 내집단 대 외집단)가 전위된 공격에 주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 Epstein의 고전적인 연구(Epstein, 1965)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위(즉,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격(authoritarianism)과 공격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했고, 권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이었던 데에 반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이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처럼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이나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제공한 후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대학교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지위 차이로 조작해 주고 이러한 지위의 차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리고 희생양삼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예. Kessler & Mummendey, 2001)에서 시사되듯이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고, 이러한 경향은 화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보다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 상황적 요인들(situational factors)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몇몇 연구들도 최근 실시된 바 있다(예. 음주에 대한 Aviles 등(2005)의 연구와 반추에 대한 Bushman 등(2005)의 연구).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에 부가적으로, 직접 공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있지만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던 상황적 변인의 하나로 익명성(anonymity)도 또한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익명성이란 ‘이름을 숨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Diener(1976)는 익명성을 ‘개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 즉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원이 파악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익명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할로윈데이 장난(trick or treat) 시에 분장을 한 아동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양의 사탕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Diener, Beaman, Frast, & Kelem, 1976; 윤보영, 이순철, 2011, p. 322에서 재인용), Silke(2003)가 북아일랜드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범죄자들이 더 많은 폭력과 공공기물 파손 등의 범죄(vandalism)에 관련되었고, 폭행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며 공격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이버 상황에서의 익명성과 관련된 연구 중 Suler(2004)의 연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상황이 개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구속감을 적게 느끼게 하며, 더욱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며 사람들을 더욱 공격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상황에서의 악성댓글이 몇몇 연예인들의 자살을 이끈 예도 존재하며, 무차별적인 사이버공격이 가해지는 ‘신상 털기(개인정보프로파일링)’ 사례는 익명성에 따른 공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 억제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좌절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듯 익명성과 직접적인 공격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익명성은 전위된 공격에도 인과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시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주는 이러한 효과는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

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 유무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각기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공격대상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서 평가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된다면 이 두 변인의 효과가 가산적으로 작용하여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행동 즉 큰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위된 공격행동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보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이러한 효과는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삼원 상호작용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전위된 공격행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전위공격성 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155명의 대학생(남성 56명, 여성 9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조작점점 문항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실제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지만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잘못 응답했던 4명과 본인이 평가했던 글의 작성자가 교수라고 안내받았지만 대학생으로 잘못 보고한 참가자 1명은 실험에 임하는 태도의 성실성이 의문시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종속측정의 각 조건별 Z점수 분석에서 이상치(outlier)로 판단된 1명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총 6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는 149명의 대학생(남성 51명, 여성 98명)이 사용되었다.

2. 실험설계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적) × 2(공격대상의 지위: 낮음/높음) × 2(익명성: 있음/없음) 피험자 간 설계가 사용되었으며, 각 회기 당 8명의 참가자가 함께 실험에 참가하였다. 8개 조건에 최하 16명에서 최대 20명의 참가자가 할당되었다.

3. 실험절차

실험 2주 전에, 모집된 참가자들에게 에세이를 작성케 하여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에세이 주제는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 형제, 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상관 없이 없으며 분량은 A4용지 1쪽 이내로 하고 소속 학과와 작성자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2주 후 예정된 실험 시간에 최대 8명까지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실험자는 8명의 참가자들을 8개 실험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실시 시에 참가자들이 서로의 실험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8개의 책상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배치하였다. 각 참가자의 책상 위에는 각각 3개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봉투에는 실험 참가자 본인이 2주 전에 실제로 제출한 에세이와 이에 대한 평가점수가 기록된 용지가 들어 있었고, 두 번째 봉투에는 실험 참가자가 평가할 타인의 에세이와 이를 평가하여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지가 들어 있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조작체크문항을 넣어 두어 참가자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가. 평가 피드백 조작

평가 피드백 조작 방법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던 Kirkpatrick, Waugh, Valencia, 그리고 Webster(2002)의 방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중립적인 피드백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착석하면 실험자는 첫 번째 봉투에 들어있는 본인의 에세이와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작성한 글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참가자들을 무선적으로 중립적(평균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 조건에 할당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중립적 평가 피드백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지난번에 제출한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대 대학원생이 평가한 결과, 제출한 150여 학생의 전체 평균은 80점(B등급)이며, 당신이 받은 점수는 아래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에서 ‘80점 B등급’ 급간에 눈

에 잘 띄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문을 제시받았다(**대는 참가자가 다니는 대학의 이름임). 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참가자들은 중립적 평가 피드백 조건과 점수만 제외하고 동일한 문장과 표를 제시받았다. 즉, 자신의 점수가 '60점(D등급)'에 해당한다는 문구와 제시된 표에서 '60점 D등급' 급간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문을 제시받았다. 참가자의 에세이를 평가하는 사람을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으로 알려 준 것은 평가대상(즉, 교수 또는 대학생)과의 유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나.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조작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두 번째 봉투를 열어 타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평가지에 기록하였다. 이 에세이의 주제는 참가자가 제출했던 에세이의 주제와는 달랐고 필체가 평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이핑되어 있었다. 에세이의 제목은 '나를 위해 떠난 여행, 템플스테이'였고 여행과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이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적혀 있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에세이는 실험이 진행된 대학교가 아닌 타대학교 학생 10여명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지 않고 평가하게 했을 때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정도가 평가점수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는 동일한 에세이에 대해 작성자의 사회적 지위를 조건별로 달리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즉,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작성자 란에 가상의 동 대학교 학생의 이름(예. **대학교 2학년 김준범)이 적혀 있었고,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작성자 란에 가상의 동 대학교 교수의 이름(예. **대학교 교수 김준범)이 적혀 있었다.

다. 익명성 조작

익명성도 또한 타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할 때 조작되는데, 익명성은 타인의 에세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적는 기록지에 자신의 소속 학과와 이름을 적는지 유무로 조작했다. 즉, 익명성 있음 조건의 참가자들은 평가지에 평가점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며 실험실 중앙에 마련된 공동의 박스에 평가지를 접어 넣어 실험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평가가 익명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조작해 주었다. 익명성 없음 조건에서는 에세이 평가지에 자신의 소속 학과와 이름을 적게 하여 평가지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조작하였다.

타인의 에세이를 읽고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

실험자는 실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평가가 끝나면 실험자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세 번째 봉투를 개봉하게 하여 조작점검문항에 반응하게 하였다. 학기 말에 있을 사후설명 시간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한 후에 실험을 끝마쳤다.

4. 종속측정치

주 종속측정치는 ‘전위된 공격의 정도’로서, 참가자가 평가대상의 에세이를 대학교의 성적 평정 척도인 최하 55점(F학점)에서 최상 95점(A+학점) 사이의 척도 상에서 평가한 점수를 전위된 공격의 정도로 사용하였다. 즉, 평가점수가 낮을수록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는 전위된 공격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II. 결 과

1. 독립변인 조작효과

평가 피드백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9점 척도로 반응하게 했던 문항(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매우 만족한다)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M=3.41$, $SD=1.98$)이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M=5.41$, $SD=1.80$)보다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고하여 평가 피드백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7)=6.45$, $p<.001$).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평가한 에세이의 작성자가 대학 내의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 자신보다 낮은지 높은지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여 측정하였다(1=나보다 훨씬 낮다, 9=나보다 훨씬 높다). 공격대상의 신분이나 지위가 학생이었던 참가자들($M=4.63$, $SD=1.29$)보다 교수였던 참가자들($M=7.35$, $SD=1.54$)이 공격대상의 신분이나 지위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여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7)=11.67$, $p<.001$).

익명성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평가대상의 에세이에 대해 부여했던 점수를 연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모를 것이다, 9=100% 알 것이다). 익명성이 조작된 조건의 참가자들($M=3.82$, $SD=2.34$)이 익명성이 조작되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들($M=5.92$, $SD=2.26$)보다 유의하게 익명적이라 느꼈다고 평가하여 익명성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

7)=5.57, $p<.001$).

2. 전위된 공격행동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성별의 주 효과는 물론 실험에서 조작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이후의 분석에서는 성별을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에세이 평가점수에 대해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적) × 2(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낮음/높음) × 2(익명성: 있음/없음) 변량분석이 실시되었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가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평가 피드백, 평가대상의 지위 및 익명성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가 피드백				전체
		중립적		부정적		
		익명성		익명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낮음 (학생)	M	77.89	76.89	63.31	68.22	71.97
	SD	(7.44)	(8.23)	(7.09)	(8.18)	(9.70)
	n	19	19	16	18	72
지위 높음 (교수)	M	78.11	77.37	69.74	75.00	75.05
	SD	(9.93)	(6.32)	(9.61)	(10.86)	(9.74)
	n	19	19	19	20	77
전체	M	78.00	77.13	66.80	71.79	73.56
	SD	(8.65)	(7.24)	(9.04)	(10.15)	(9.30)
	n	38	38	35	38	149

*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표2. 평가 피드백, 평가대상의 지위 및 익명성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의 삼원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i>F</i>	<i>p</i>
A (피드백)	1	2679.48	2679.48	35.98	.000***
B (지위)	1	447.18	447.18	6.00	.015*
C (익명성)	1	156.04	156.04	2.22	.139
A×B (피드백×지위)	1	363.39	363.39	4.88	.029*
A×C (피드백×익명성)	1	328.94	328.94	4.42	.037*
B×C (지위×익명성)	1	.88	.88	.01	.914
A×B×C (피드백×지위×익명성)	1	.02	.02	.00	.987
S(A×B×C) (오차)	141	10502.02	74.48		
전체	149	820583.00			

* $p < .05$, *** $p < .001$

첫째,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에세이를 평가한 사람은 참가자가 다니는 대학의 익명의 대학원생이었고, 참가자가 평가해야 할 에세이를 쓴 사람은 이 익명의 대학원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성 표출은 전위된 공격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 피드백의 주 효과가 유의했는데($F(1, 141)=35.98, p < .001$), 이는 자신의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M=69.40, SD=9.89$)이 중립적인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M=77.57, SD=7.94$)보다 공격대상의 에세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위된 공격을 보임으로써, 전위공격성의 주 효과를 예상했던 가설1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의 주 효과가 유의하여($F(1, 141)=35.98, p < .001$), 가설2가 지지되었다. 즉,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M=75.05, SD=9.74$)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M=71.97, SD=9.70$)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3. 평가 피드백과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p
B(지위) at A1(중립적 피드백)	1	2.22	2.22	0.02	.877
B(지위) at A2(부정적 피드백)	1	641.67	641.67	6.89	.010*
오차	141	10502.02	7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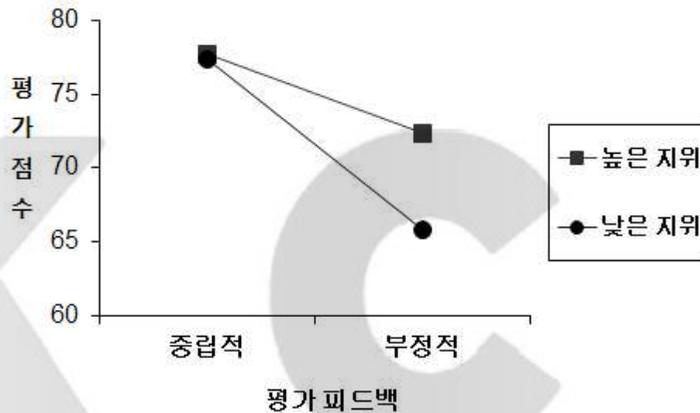
* $p < .05$ 

그림 1. 평가 피드백과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셋째,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의 상호작용이 유의함에 따라($F(1, 141)=4.88, p<.05$) 두 변인 각각의 유의한 주 효과의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표 3에 제시했고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M=77.74, SD=8.22$) 낮음($M=77.39, SD=7.76$)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M=72.44, SD=10.48$)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M=65.91, SD=7.97$)에게 유의하게 더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

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3도 지지되었다.

표 4.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p
C(익명성) at A1(중립적 피드백)	1	14.33	14.33	0.15	.698
C(익명성) at A2(부정적 피드백)	1	393.00	393.00	4.14	.044*
오차	141	10502.02	74.48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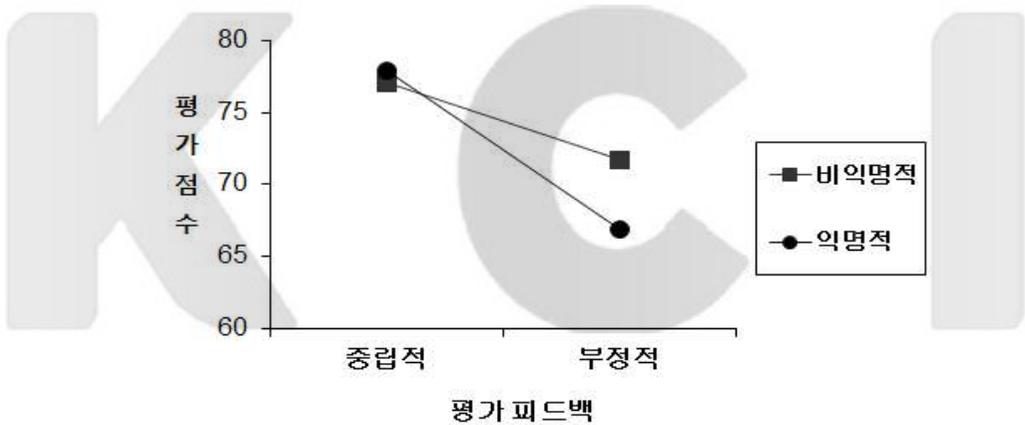


그림 2.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넷째,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 가설 4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F(1, 141)=4.42, p<.05$), 이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표 4에 제시했고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인지($M=78.00, SD=8.65$)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M=77.13, SD=7.24$)에 상관없이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M=71.79, SD=10.15$)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M=66.90, SD=9.04$)에서 유

의하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겠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 유무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다섯째,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달리 나타나리라 예상했던 가설 6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익명적이거나 익명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전위된 공격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실험 연구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피드백과 지위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했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표출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이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중립적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전위된 공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이는 중립적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익명성 보장 유무에 따라 전위된 공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 상호작용보다 더 익명적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고(예. 악성 댓글),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전위된 공격을 통한 공격성 해소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험의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와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달리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위된 공격 실험 절차는 공격의 대상이 공격을 유발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사용한 절차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공격 대상이 공격에 대한 사소한 촉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인 ‘촉발된 전위된 공격(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상황에서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익명성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한지를 고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미래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전위된 공격이 상당히 강한 현상(평균 효과크기 = +0.54; Marcus-Newhall 등, 2000)이고 직접 공격과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공격적인 행동(예, 폭력, 차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위된 공격의 실체성이 의심받고 있고 또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주는 공격 대상의 특징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 직접 공격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익명성의 영향을 연구한 바는 있지만,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고찰하고 있어서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강화된 연구 윤리의 영향 등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공격행동 및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실험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학교 현장이나 산업 현장의 인간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정 형태의 왕따나 집단 따돌림은 전위된 공격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동료들 왕따나 집단 따돌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위된 공격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책도 이러한 현상의 이해와 설명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사되듯이, 익명성을 감소시켜 개개인의 확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전위된 공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질적,

성격적 요인이나 공격대상의 특정 요인처럼 단기간 동안의 변화가 어려운 요인은 전위된 공격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용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상황적인 요인은 전위된 공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즉각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이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모두에서 익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서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도 아래에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위’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의 차이로 조작되었는데, 이 사회적 지위의 조작에 “에세이 작성 실력”이 혼입되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참가자들이 낮은 점수를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에세이를 더 잘 작성한다는 고정관념이 작동하여 참가자들이 더 낮은 점수를 주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사회적 지위’ 독립변인의 조작이 종속변인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설계를 통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세이에 대한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이 전위된 공격행동의 측정치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풀이로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나쁜 점수를 준다면 이 행동을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에세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미래의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Cherek(1981)의 점수 감산 공격패러다임을 응용한 종속측정치와 같이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전위된 공격행동의 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현실 생활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적용할 때 실험실 연구로서 가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실험실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 등을 제공하여 분노를 유발한 후에 전위된 공격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에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본인을 보고 짓는 개를 맞이하게 되는 등 전위된 공격을 표출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실험연구에서의 결과가 현실상황에서도 적용 또는 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전위된 공격에 대한 현장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긴 역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미 개척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사회심리학의 중요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질적 요인, 상황적 요인, 공격대상의 특성 요인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절변인들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직접 공격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미래의 연구가 매우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Reijntjes 등 (2013a)의 연구는 직접 공격이 전위된 공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사용된 표집이 청소년 표집이었기 때문에 성인 표집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윤보영, 이순철 (2011). 익명상황의 운전행동과 운전분노 및 정서표현갈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3), 321-341.
- Aviles, F., Earleywine, M., Pollock, V., Stratton, J. & Miller, N. (2005). Alcohol's effect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 108-111.
- Baron, R. A., & Richardson, D. R. (1994). *Human aggression (2nd ed.)*. New York: Plenum Press.
- Berkowitz, L. (1993a).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erkowitz, L., & Knurek, D. A. (1969). Label-mediated hostility 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00-206.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Bushman, B. J., & Huesmann, L. R. (2010). *Aggress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Ch. 23, pp. 833-863)*. New York: John Wiley & Sons.
- Cherek, D. R. (1981). Effects of smoking different doses of nicotine on human aggressive behavior. *Psychopharmacology*, 75, 339-345.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M.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iener, E. (1976). Effects of prior destructive behavior, anonymity, and group presence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5), 497-507.
- Diener, E., Beaman, A. L., Fraser, S. C., & Kelem, R. T. (1976). Effects of deindividuation variables on stealing among Halloween trick-or-tre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36-245.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pstein, R. (1965). Authoritarianism, displaced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of the targe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585-589.
- Geen, R. (1990). *Human aggress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Hoobler, J. M. & Brass, D. J. (2006). Abusive supervision and family undermining as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1125-1133.
- Kessler, T., & Mummendey, A. (2001). Is there any scapegoat around? Determinants of intergroup conflicts at different categorization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90-1102.
- Kirkpatrick, L. A., Waugh, C. E., Valencia, A., & Webster, G. D. (2002).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756-767.
- Liu, Y., Wang, M., Chang, C., Shi, J., Zhou, L., & Shao, R. (2015). Work-family conflict, emotional exhaustion, and displaced aggression toward others: The moderating roles of workplace interpersonal conflict and perceived managerial family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3), 793-808.
- Marcus-Newhall, A., Pedersen, W. C., Carlson, M., & Miller, N. (2000). Displaced aggress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70-689.
- Miller, N. E., (1941).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 337-342.
- Miller, N. E. (1948). Theory and experiment relating psychoanalytic displacement to stimulus-response gener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 155-178.
- Mosher, D. L., & Proenza, L. M. (1968). Intensity of attack, displacement, and verbal aggression. *Psychonomic Science*, 12, 359-360.
- Reijntjes, A., Kamphuis, J. H., Thomaes, S., Bushman, B. J., & Telch, M. J. (2013a). Too calloused to care: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youths' displaced aggression against their pee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 28-33.
- Reijntjes, A., Thomaes, S., Kamphuis, J. H., Bushman, B. J., Reitz, E., & Telch, M. J. (2013b). Youths' displaced aggression against in-and out-group peers: An experimental exa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 180-187.
- Rosen, L. H., & Underwood, M. K. (2010). Facial attractiveness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and popular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4), 313-333.

Silke, A. (2003). Deindividuation, anonymity, and violence: Findings from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4), 493-499.*

Suler, J. (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 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White, L. (1979). Erotica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sexual arousal,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591-601.*

Worchel, S., Hardy, T. W., & Hurley, R. (1976). The effects of commercial interruption of violent and nonviolent films on viewers' subsequent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220-232.*



Effects of Evaluation Feedback, Social Status of the Target and Anonymity on Displaced Aggression

Lee, Hae-Young · Seok, Dong-He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valuation feedback, status of aggression target and aggressor's anonymity on displaced aggression. The evaluation feedback was manipulated by providing a fake neutral or negative feedback on participants' own essay regardless of the excellence of their writings. The status of aggression target was manipulated by giving fictitious name and status (professor or student) of the writer of the essay which was supposed to be evaluated by participants. Anonymity was manipulated by having participants to write down their name on the evaluation material or having participants not to give any information about them. The ANOVA results of the study(N=149) revealed th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the evaluation feedback and social status of the target. That is, participants who had the negative feedback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splaced aggression than participants who had the neutral feedback. Also,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splaced aggression on the target who had low social status than high social status. Two significant 2-way interaction effect of the evaluation feedback × social status of the target and the evaluation feedback × anonymity were found. That is, participants showed higher displaced aggression on the low status target than the high status target only when they received negative evaluation feedback. Also, participants showed higher displaced aggression when they considered the situation as anonymous than the situation was not anonymous and this was true only when they received negative evaluation feedback.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displaced aggression, evaluation feedback, social status, anonymity